

# 제1야당 겨누는 검...민주 “막장 기획사정” 격앙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청구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유동규 검사실 불러 회유·협박”  
검찰 조작 수사 가능성도 제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이어 제1야당에 대해 칼 끝을 겨누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꼭 대본으로 출발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극적 효과를 배가하려 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자 그에 맞춰서 검찰이 서 전 장관 등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기획사정’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을 함께 비난한 것이다.

조용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탈북어민 강제 복속’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을 두고도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턱막까지 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선 전일 정권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사실상 대통령실의 방조 속에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설훈 의원은 당내 전·현 국방위원들과 이날 서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국회 기

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행태는) 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자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들끓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타깃으로 삼아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횡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압호에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부원장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정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무뎌 무뎌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구두 논평을 통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관련,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영장)발부한 지 금, 수사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검찰, 당사 압수수색 항의...국정감사 중단”

“바닥 지지울 올리려는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비상상황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우리 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조류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주시기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내 지도부의 주문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체위 등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의 국감이 중단됐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은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안회하고자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며 “우리당은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자국의 ‘압수수색 쇼’에 강력히 항의하고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벌어진 감사원의 정치 감사, 검찰의 정치 수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무모하게 시도되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며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왔다.

이날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으로 인해 20일 오전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 현장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 박홍근 “서해사건 국방위 회의록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난 금요일 공소장에 버금가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영장 청구로 극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실이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논의한 후 해군과 국방부의 공동 발표로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한기호 간사 등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 정황을 수긍하고 인정한 진실이 그 회의록에 다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한 절차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감사원은 정치 탄압의 손발이 되기로 작심하고 윤석열 정권에 맹세한 모양”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제3, 제4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가 안 나오도록 입법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내주 중에 당헌 형태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정훈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치 보복성 검사 금지, 감사원 기능 축소 등이 담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의당 당대표 선거, 이정미·김윤기 결선

이정미 49.91% 득표, 과반 미달

정의당이 신임 당 대표를 뽑기 위해 이정미 전 대표와 김윤기 전 부대표 간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정의당은 19일 전체 선거권자 1만7677명 중 9724명이 참여한 7기 전국동시지방선거 대표단 선출선거 결과, 1위인 이정미가 49.91%의 득표율로 과반을 얻지 못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대표의 득표율은 17.66%다.

결선 투표는 23일부터 엿새 간 치러지며 오는 28일 그 결과가 발표된다.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며 창당 후 최대의 위기 상황을 겪다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 우편투표 등으로 선거를 진행해 왔다.

총 5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3위인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은 12.09%, 4위인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11.78%, 5위인 이동영 전 수석대변인은 8.56%를 각각 얻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투표에서 과반에 가까운 표를 얻은 이정미의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다. 이정미는 이날 국회에서 선거 결과 발표가

있을 뒤 기자들과 만나 “제 절박한 마음이 0.09% 포인트 모자랐다 보다”라며 “당의 새 대표가 누가 될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끔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부대표는 “당원과 지지자가 강력한 혁신을 요구할 때 안주하는 것은 퇴보이자 퇴행”이라며 “당의 안정을 말하는 사람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된 부대표 선거에서는 이현정 당 기후위기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기중 관악구의회 의원이 각각 34.02%와 26.2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편, 정의당 자체 조직인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서는 56.4%를 얻은 김강민 남양주시갑 지역위원장(43.6%)을 얻은 위선희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운영위원을 꺾고 대표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현재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